

권탄준 교수의
경전읽기

화엄경 입법계품 <3>

입법계품의 이념(理念) ①

입법계품에 해당하는 범어의 원래 명칭은 간다부하(gandavyuha)이다. 이 간다부하 학자에 따라 해석이 실로 여러 가지이지만, 예로부터 대체로 '여러 가지 꽃으로써 아름답게 장식한다 [華嚴嚴飾]' 는 의미로서 널리 알려져 있다. 이러한 해석은 선재동자가 찾아가는 53선지식을 각각 식물의 꽃에 비유하여 그것을 경전의 이름으로 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53인의 선지식들은 각각 자신들의 생활영역에서 진실한 가르침에 따라 보살행을 실천하여 자신들의 삶을 아름답게 꽃피워 낸 존재이기 때문이다.

입법계품의 첫째가는 주제는 선재동자의 구법여행이다. 선재동자라는 한 사람의 구도자가 보리심을 일으키고 나서 53인의 선지식을 차례로 찾아가서 '보리심을 일으킨 사람은 보살행을 어떻게 배우고,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묻고, 그들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내용이다. 선지식을 찾아갈 때마다 묻는 내용은 언제나 같고, 서로 다른 환경에서 다양한 신분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선지식들은 제각기 나름대로 그 물음에 대답하여 법을 설하고 있다. 그러므로 입법계품의 교설은 보리심을 일으킨

사람이 다양한 현실세계의 삶을 살아가면서 보여야 하는 보살의 이상적인 여러 가지 삶에 대해 설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구법여행은 선재동자가 문수보살을 만나 보리심을 발하고, 그의 지도에 의해 구법여행에 나서는 것으로 시작된다. 그리하여 최

화엄경에서 입법계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름을 붙이고 있는 것은 여기에서 유래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범어로 되어 있는 '간다부하'란을 번역하여 40권으로 한 화엄경에는 그 부제(副題)가 '부사의한 해탈경계에 들어가는 보현행원품'으로 되어 있다. 법계는 바로 부처님의 경계이며, 그 경계는 바로 해탈 열반의 경계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부사의한 해탈이라고 한 것은 입법계품에서 설하고 있는 해탈 열반이 성문의 수행도에서 말하는 해탈 열반과는 현저하게 다르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것은 바로 성문의 수행도에서 말하는 열반은 혼탁하고 고통스러운 현실을 떠나서 얻는 것이지만, 보살도의 해탈은 현실에 순응하면서 현실을 초월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부사의한 해탈이아말로 부처님의

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인가. '보현'이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범어는 Samantabhadra이다. '널리 뛰어나다', '두루 길하고 상스럽다'는 뜻으로 일반적으로 부처님의 덕을 찬탄하는 의미로 쓰이며, 보통 보현 또는 변길(遍吉)이라 번역된다. 또한 이상적인 불도수행을 찬양하는 뜻에서 대승보살의 깊은 용맹심과 대지비의 광대함을 나타내는데 사용되기도 한다. 바로 이러한 의미가 대비이타의 대승보살의 이념과 부합되므로 적극적인 보살행을 강조하기 위해 입법계품에서 '큰 비행[大行]'을 상징하는 보현보살의 이름으로 되지 않았나 생각되고 있다.

보현이라고 하는 말이 행하는 덕이 두루 널리 미치어 항상 일체의 선(善)을 나타낸다는 측면에서 지리이타가 원만한 대보살이나 대승보살행을 의미하는 호칭으로 어울리는 것이라 생각된다.

보현행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지혜로써 법을 잘 관찰하여 거기에 순응하면서 스스로 부처님의 깨달음의 경계를 생각하고, 부처님의 훌륭한 덕을 널리 실현해 나가는 것이다. 입법계품은 이러한 보현행의 체현자를 특정 보살의 이름으로 삼아 경전의 으뜸가는 보살로 삼는다. 이렇게 해서 경전 속에서 가장 중요한 지위를 부여한 것은 깊은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보현보살은 대승보살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부처님의 덕을 널리 실현하는 대지비의 보살행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나아가는 보살이다. 화엄경에서 보현보살을 크게 부각시키고 있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에게 그와 관련된 보살행을 강조하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동국대 불교대학원 교수>

53선지식 식물의 꽃에 비유

지혜로 덕 실현이 보현행

후에 보현보살을 만나 법계에 들어가는 수행을 완성한다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법계라고 하는 말은 진여·제법실상·실제(實際)와 같은 불교용어와 유사한 것으로서, 진리의 세계 혹은 진실의 세계라고도 할 수 있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법계에 들어간다고 하는 말은 '깨달음을 성취한다' 또는 '부처님의 세계에 들어간다'고 하는 의미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원래 gandavyuha 라고 하는 범어로 되어 있던 것을 60권 혹은 80권

경계이며, 이것에 순응하여 들어가게 하는 것이 바로 보현의 행원이라고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부제를 통해서도 입법계품의 내용이 대승불교의 입장을 강하게 표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입법계품이 보현행원이라고 하는 보살도를 가지고 부사의한 해탈경계인 부처님의 경계에 들어가는 법을 설하는 것이라는 것도 알게 된다.

그렇다면 보현행원이란 과연 무엇이며, 어떻게 해서 그것을 통해서 부처님의 경계

통 우리는 손이라고 하면 다섯 손가락을 가진 한명이 빠와 살을 손이라고 여길 뿐, 손 구실은 무시하고 있다. 손 모양을 따라가서 진실한 손을 놓치고 있는 것이다.

무엇이 눈인가? 눈꺼풀·눈썹·각막·수정체·망막·시신경으로 이루어진 살덩이가 눈인가? 아니다. 보는 것이 바로 눈이다. 본다는 구실을 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눈 모양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눈이 아니다. 눈꺼풀을 깜빡이고 눈알을 움직이며 온갖 색깔과 온갖 모양을 이리 저리 순간 순간 보고 있는 것이 바로 진짜 눈이다. 그러므로 모양으로 드러나는 눈이 진짜 눈이 아니라, 본다고 하는 모양 아닌 눈 구실이 바로 참된 눈

은 아니며, 느끼되 느끼는 아니며, 욕망되 욕망은 아니며, 슬퍼하되 슬픔은 아니며, 기뻐하되 기쁨은 아니며, 분노하되 분노는 아니며, 즐거워하되 즐거움은 아니며, 사랑하되 사랑은 아니며, 미워하되 미움은 아니며, 애착하되 애착은 아니며, 싫어하되 싫증은 아닌, 구실하고 행동하고 움직이는 것이 바로 참된 마음이다.

마음은 생각·느낌·욕망·슬픔·기쁨·분노·즐거움·사랑·미움·애착·싫증 등의 모양은 아니지만, 이러한 모든 모양과 더불어 모양과 틀이 아니게 작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바르게 보면 모양 아닌 마음이 보이고, 샅되게 보면 마음은 없고 모양만 있을 뿐이다. 모양을 따라 가는 것은 피곤한 일이고, 모양이 없는 작용인 마음에 맡겨 두면 편안히 쉬는 것이다.

따라서 쉬고 싶으면 모양에 머물지 말고 모양을 가지거나 버리려 하지 말고, 다만 작용에만 가만히 맡겨 두어라.

김태완·부산대 강사, 철학과

■ 김태완 선생의 <금강경> 특강
1.2월, 부산무심선원 매주 토요일, 수원경기불교문화원 2.4주 일요일. 051-515-7226(무심선원), 016-456-8957(강보명) http://www.mindtree.net/



강길전 교수의
불교와 의학 <3>

삼합(三合)에 의해 생명은 시작

윤회 사상은 불교에서 중요한 사상이며 윤회 사상은 생명이 있는 모든 존재의 생물에 적용된다. 사람의 생명 시작을 설명하는 사상이란 것이다. 따라서 인간의 발생과 탄생도 윤회 사상이 적용된다.

불교의 유식학(唯識學)에 의하면 사람이 죽으면 육체와 정신은 분리되어 육체는 사라지고 정신은 남게 되는데 이것을 중유(中有)라고 하였다. 여기서 중유(中有)는 사람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천안(天眼)으로만 볼 수 있는 '정신적 존재'이다.

중유(中有)는 살아있을 때의 습(習)에 의하여 살고자 하는 욕망을 갖게 되며 다시 육체를 갖고 싶어한다. 그래서 이 세상의 남녀(장자 부모가 될 사람)가 음행(성관계)하는 것을 훔쳐 보게 되고 드디어 모체의 근분(생식

의 시작은 제1 조건인 어머니의 난자, 제2 조건인 아버지의 정자 그리고 제3 조건인 즉은 사람의 '정신적 존재'인 중유(中有)가 서로 합쳐 이루어지는 것을 삼합(三合)이라고 하며, 생명은 수정하는 순간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여긴다.

이렇게 시작한 인간의 생명체는 8단계를 거치면서 발생의 과정을 밟는다.

제일 첫 단계를 나림이라고 부르는데 이 시기는 수정 후 첫 7일 동안을 말하며 이 시기는 아뢰야식(중유가 수정란과 합친 이후는 이름을 바꾸어 분유 혹은 아뢰야식이라고 함)이 지(地), 수(水), 화(火), 풍(風)과 같은 에너지를 끌어들이 수정란을 분화시키는 단계라고 했다.

다음으로 부담, 폐시, 건남, 발나,

'중유'의 업과 부모의 인연따라 만나

생명체는 8단계 발생과정 거쳐

기) 속으로 들어가 수정란과 합쳐지게 된다. 이때 중유(中有)가 장자 태어날 부모를 만날 때는 아무렇게나 우연에 의하여 만나는 것이 아니다. 중유(中有)의 업(業)과 부모와의 인연에 따라 만나게 되며, 선업(善業)을 많이 포함한 중유(中有)는 사물을 옳게 보는 힘이 있어 좋은 인연으로 좋은 부모를 찾아 태어나지만, 악업(惡業)을 많이 포함한 중유(中有)는 사물을 바라보는 힘이 미약하여 사람이나 동물을 가리지 않고 아무 몸이나 찾아 태어날 수도 있다고 하였다.

이상을 종합하면 불교에서는 생명

발모, 근위 및 형위 등의 단계를 거치면서 38주 동안 태이는 성숙을 한다고 하였다. 이렇게 38주간 완전히 성숙을 하고 다시 4일이 지나야 출생을 한다고 하였다.

이상 불교에서 말하는 삼합(三合)이라는 개념을 설명하였는데 컴퓨터와 비유해서 말하면 이렇다.

컴퓨터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유전자로부터 주어 지지만 그 컴퓨터를 작동하는 조작자(operator)는 정신적 요소인 망자의 중유(中有)라고 말할 수 있다.

■ 충남대 의대 산부인과학



'임제록' 통한 선 공부 ④

작용에 맡겨 두어라

밥을 생각하면 백가지 맛의 음식이 고루 갖추어 질 것이고, 다시는 뜻하지 않은 병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깨달음에는 머물 곳이 없으므로 얻는 것도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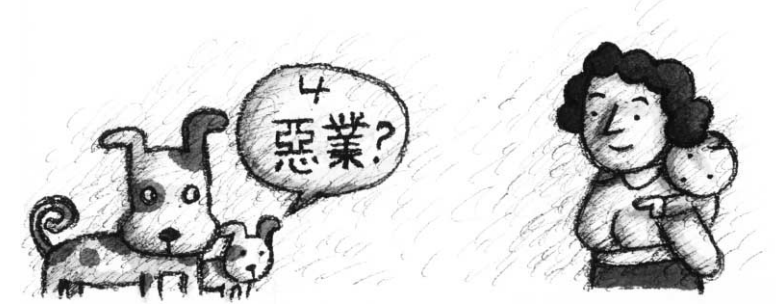
무엇을 가지고 손이라 하는가? 손톱·손가락·손등·손바닥·손목으로 이루어진

모양에 집착 진실 놓치지 말아야

살갓과 뼈가 손인가? 아니다. 손 구실하는 것이 바로 손이다. 손 구실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손 모양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손이라고 할 수 없다. 쥐고 펴고 가리키고 들고 내리고 하는 손 구실하는 것이 바로 참된 손이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모양이 손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구실이 바로 손이다. 보

이다. 보통 우리가 모양을 눈이라 여기고 본다는 구실을 무시하는 것은 역시 모양을 따라서 진실을 놓치고 있는 어리석음이다.

무엇이 마음인가? 생각하고 느끼고 욕망하고 슬퍼하고 기뻐하고 분노하고 즐거워하고 사랑하고 미워하고 애착하고 싫어하는 것이 마음인가? 아니다. 생각하되 생각



그림·문병성